

민천주보

제2830호

2024년 6월 9일 | 연중 제10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아라동 성 베드로 성당>, 2023년 설립

입당송 | 시편 27(26),1-2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제1독서 | 창세 3,9-15

화답송 | 시편 130(129),1-2.3-4.5와 6ㄴㄷ-7ㄱ.7ㄴㄷ-8(㉞7ㄴㄷ)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

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 2코린 4,13-5,1

복음 환호송 | 요한 12,31-3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

복음 | 마르 3,20-35

영성체송 | 시편 18(17),3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웁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섭니다.(마르 3,21 참조)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친족 전체가 수치를 당할까 우려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틀, 기존의 관습과 법 제도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행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과 그 이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미친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세리였습니다.(마르 2,14 참조)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창녀와 함께 대죄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대죄인을 제자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시며 형제애를 나누셨는데, 이 모습을 본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마르 2,15-16 참조) 왜냐하면 그 모습은 유다의 사회 규범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일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미친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겐 법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달리 병자를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차원에서 대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마르 3,1-6 참조)

예수님은 구름떼처럼 몰려온 군중들 때문에 음

식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마르 3,20 참조) 그 군중들 속에는 수많은 병자와 마귀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마르 1,32-34 참조) 예수님은 쉴 틈도 없이, 끼니도 거른 채 그들을 고쳐주시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나 자신의 영화와 안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변두리 인생들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세상을 거스르는 파격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유다 지도자들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보기에 미친 사람 같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게 익숙하고, 편하고, 세상에 잘 어울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너도 나처럼 미쳤구나, 미쳤어.”



이용권 베드로 신부
교구 총대리

열린 문제들

“그래서 결과가 뭔데?”

“결정된 게 뭐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회의’를 통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본당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결정할 일들, 본당 내의 단체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할 일들은 당장에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회의하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발생하기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에서는 그것이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꺼내놓고 나열하는 일, 다양한 논의를 펼쳐 열어 보이는 것이 그 간 결정 사항을 쫓았던 우리의 회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시노드 1회기 종합 보고서는 시노달리타스 나눔을 회의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대화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성령 안에서의 대화’에서는 이익을 위한 결정도, 다수결에 따른 결정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 여정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서로 경청하는 데에서 자유를 우선시하는 소통의 방식”을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교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함께 걷는 길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장애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꺼내진 이야기들은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이었고, 계속해서 성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편견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특정된 누군가를 낙인찍어 대하지 않으시며, 비록 당신께

서 오해받으시고 거부당하는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 마음으로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께서 함께하실 때, 그분을 만나는 이는 변화됩니다.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시노드는 그 모습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시노드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에는 급진적인 쇄신에 대한 기대가 서려 있기도 했고, 일찍이 회의적 태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노드 과정에서 우리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다양한 교리적, 사목적, 윤리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1회기 종합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경직된 태도로 그리고 판단하는 자세로 교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관계된 물음들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에 결합하여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진리에 우리는 더 깊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식별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교회 안에서 열린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명형진 시몬 신부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교구 시노드 위원

깔깔수녀님



김요한

유혹을 떠밀지 말고 내 안에 품고 복여요

기도의 힘

윤종현 베네딕토 | 용현동 본당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윤종현 베네딕토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기도가 간절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른 신자분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니부터 천주교를 믿어 부모님, 저까지 쪽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부모님이 다니시기에 저도 다녀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지난 19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입시에 바빠 성당에 소홀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당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은 매주 성당을 다니시며 미사를 봉헌하고, 어머니는 성당에서 교리 교사로 활동하시며 어린 친구들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교 과정이 끝나 대학 입시 발표를 기다리던 때, 저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여태껏 해보지 않은 그 간절한 기도를 성당에서 드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성전에 들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니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무겁고 불안했던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와 부모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수능 100일 기도도 매번 참석하여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망의 대학 발표날이 되고, 저는 두근대는 마음을 움켜잡은 채 수험번호를 친 후 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게도, 제가 적은 대학 중 가장 높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정도의 짜릿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면 무심하게도 잘 안 들어주시던 하느님께서 제 19년의 결과물을 합격으로 보상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의 힘은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신자분들 중에 저와 같이 하느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이니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겪은 청년으로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은 확실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과분한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분한 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 과분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간절히 기도드리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느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의무감으로 성당을 다녀왔지만, 믿지 않았다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에게 나타난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이 입시의 늪에서 저를 구해주신 하느님과 많은 기도와 지원을 해주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나날들을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보낼 것입니다. 또 현재 입시를 끝낸 수고하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굳은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믿음과 은총’ 코너에 실릴 사진과 일상 신앙 수기를 모집합니다. 띄어쓰기 포함 1,600자 분량의 원고(A4)를 hongbo032@daum.net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선정 후 주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범박동 본당 새 성전 봉헌식



5월 12일(주일) 범박동 본당(=주임 박진양 베드로 신부)은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원로사목자 박성규 베네딕도 신부를 비롯한 교구 사제들과 지역구 의원 등이 함께하였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성체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길 부탁하였다. 2003년 분당 이후 상가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다 21년 만에 새 성전을 마련한 범박동 본당 신자들은 성전 건립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 단을 봉헌하였고, 정신철 주교는 긴 시간 동안 기도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신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축하식 후에는 전신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축하와 기쁨을 나누었다.

교구 홍보기자 장민영 클라우디아

제10차 미래사목연구소 학술발표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

1일(토) 교구청 이안나 홀에서 미래사목연구소(=소장 김상인 필립보 신부) 주최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를 주제로 한 제10차 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발표회는 그동안 보편 교회에서 강조한 ‘시노달리타스’의 신학적, 사목적 의미가 현재 본당 공동체에 얼마나 육화되고 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학적 주제 발표로 춘천교구 만천 본당 주임, 시노드사목부 담당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가 “시노드적 본당의 삶을 위한 ‘평의회’의 제자리 찾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로 모래내 본당 주임 이용현 베드로 신부, 주안1동 본당 시노드 준비위원장 이형익 요셉 형제가 본당에서 시노드 모임을 진행하며 실제로 겪은 소중한 체험을 들려주었다. 이어진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에서는 본당의 시노드 모임 사례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활발하게 오갔다.

교구 미래사목연구소



제12회 한국가톨릭 농아인의 날



2일(주일) 제12회 한국가톨릭 농아인의 날이 한국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 주최, 청연 본당(=주임 임성환 바오로 신부) 주관으로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전국 20지역 농아인들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농아선교회의 활동, 교육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어진 미사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세례자 주교는 환영 인사말과 함께 “성체 성혈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임을 기억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자”고 전하였다. 한국가톨릭농아선교회 류제수 바오로 회장은 “오늘의 행사를 예수님의 기적으로 생각하며,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하였으며, 기념 묵주를 선물하였다. 정 주교는 정종욱 알베르타 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과 박민서 베네딕도 신부(=서울대교구 소속)의 강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열린교회사학교: ‘미래로 나아가는 과거’ 시즌 3 종강 미사

5월 31일(금) 교회사연구소(=소장 장동훈 빈첸시오 신부)는 박순집 홀에서 열린교회사학교 ‘미래로 나아가는 과거’ 종강 미사를 봉헌하였다. 본 강의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9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101명이 수강하였다. 본 강의로 한국 교회라는 ‘나무’만이 아니라 보편 교회의 역사와 촘촘히 연결되고, 나아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딛고 사는 ‘한국교회’라는 숲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해안 본당 혼인서약 갱신식



5월 19일(주일) 해안 본당(=주임 김인섭 바오로 신부)은 교중 미사에서 혼인서약 갱신식을 진행하였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시편 18.2)란 성구를 주제로 가정 성화와 부부 일치를 위한 본 예식에는 본당 ME 단체와 일반 부부 30쌍의 부부가 참여하였다. 부부의 날을 앞두고 이루어진 혼인 서약 갱신식 후 이어진 강론에서 김 신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였듯, 혼인서약을 갱신한 부부와 또 모든 부부에게도 언제나 성령의 도움으로 부부 일치를 이루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부부의 삶을 이어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미사 후 ME 단체의 떡 나눔을 전신자와 함께 하였으며, 참가한 한 부부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부부의 삶을 뒤돌아 보고 가정의 성화와 부부의 일치를 기도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해안 본당 홍보분과

교구청

6월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6/16(주일) 대건고등학교
11:00 중1, 중2, 신학과지원반
14:00 중3, 고1, 고2

6월 김포·강화지구 예비신학교 모임

일시: 6/16(주일) 13:30 김포 성당
대상: 중1~고2

545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7/7(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평화대화 진행자 양성교육

비폭력대화법 1단계
일시: 6/15~7/20 매주(토) 10:00~13:00
장소: 노동자센터
회비: 10만원
문의: 032-765-6970

교육 | 미사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판) 심포지엄

일시: 6/24 15:30~21:00
6/25 9:00~12:30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 대강당
주최: 한국가톨릭신학학회
주관: 인천가톨릭대학교
문의: 032-930-8014

제14회 교구 전례꽃꽂이 전시회

일시: 6/11(화)~12(수) 10:00~18:00
6/11(화) 14:00 미사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10-8886-5078

서강대학교 “영성의 책꽂이”

새롭게 상상하는 이나시오 양심 성찰
일시: 6/17(월) 14:00~16:00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무료)
강사: 예수회 심종혁 신부
문의: 02-705-4711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이진현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 번째 길: 최지원 수녀
·구약성경 아카데미: 시편 해설: 주원준 박사
·룻을 읽자!: 김민 신부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대회

일시: 6/15(토) 9:30~17:30(미사안수, 중식 무료)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 성령봉사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4박 5일] 7/10~14, 22~26
이나시오영신수련 [4박 5일] 7/22~26
여름청년피정 [2박 3일] (40세 이하, 남·녀) 7/19~21
사계절(여름)피정 7/13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8/24(토)~25(주일), 9/21(토)~22(주일)
[3박 4일] 6/27(목)~30(주일), 7/18(목)~21(주일)
[8박 9일] 6/13(목)~21(금), 7/4(목)~12(금)
[40일] 10/4(금)~11/12(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 3일 피정: 6/21~23
엄마와 딸(미혼)피정: 7/6~7
세월의 지혜 영성피정: 7/15~19(65세 이상)
영신수련 8일 피정: 8/1~10
장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1, 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문의: 010-6890-7223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6/21(금)~29(토), 7/26(금)~8/3(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목)~12(월)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특별피정(우도 포함):
7/12~14, 20~22, 25~28,
8/1~4, 6~8, 10~13, 24~26
제주교구 성지순례(추자도 성지 포함): 7/1~4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일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파티마 성모님 두번째 발현미사

일시: 6/13(목) 10:00 썰기도, 11:00 미사
장소: 교구청 내 성모순례지
주관: 인천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문의: 010-8702-5185

사회복지회 사랑의 등불 후원회 미사

일시: 6/13(목) 11:00
장소: 사회사목센터 B1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6/22(토) 11: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6/11(화) 14:30 부평2동 성당
문의: 032-529-962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지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하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불로동 성당 주일 교동미사 유경력 반주자 모집

문의: 010-7121-2154 이은주 소피아

국제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2개월 이상 정기적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성인
문의: 032-290-2701~2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 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 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일시: 9:00~17:00 (월~금)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24학년도 후기 2차 글로벌지식경영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전공: 경영회계금융학과
접수: 6/24(월)~7/7(주일)
장소: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김수환관
문의: 02-2164-4744
cukadmin.catholic.ac.kr/glba

제24회 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6/16(주일) 14:00
장소: 가정동 성당 303호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글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후원문의: 010-6680-0692

순례 | 기타

성모발현 성지순례

베트남 다낭 라방 성지 7/14 출발 [5일]
대한항공, 라방 성지 숙소 1박 포함
대표: 김명윤 베네딕도
문의: 010-5909-5997

해외 성지순례

8/19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16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동반자 할인)
9/23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동반자 할인)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발자취) [10일]
440만원
10/9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 알프스 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성지순례
11/11(월) 출발 [10일]
·베트남 다낭 짜케우 라방 성지순례
9/9~13 [5일]
문의: 010-8705-0319 최형베드로

추석연휴 해외성지순례

·추석특선: 9/11 출발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10일] 545만원,
이탈리아 [10일] 535만원,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535만원
·동반자 1백만원 할인: 9/16, 10/6, 10/20 출발
터키, 그리스 409만원
·9/23 다낭 성지순례 155만원
·10/13 성모 발현지 485만원
문의: 02-778-8565

성소모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일시: 6/16(주일) 12:00
장소: 석남동 성당
문의: 010-8738-1363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일시: 6/15(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 모임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일시: 6/23(주일) 9:00
장소: 서울 분원(서울 장충동)
문의: 010-8353-2323 (문자 문의)

모든 이를 위한 음악회

제2회 김수환추기경 추모음악회

전석무료 사전예약 필수

2024. 06. 27 THU 7:30PM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주최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후원 |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김수환추기경연구소

문의 | 02) 2164-4466

모든 이를 위한 음악회 Pro Multis

제2회 김수환 추기경 추모음악회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서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김 추기경님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용어가 종교를 초월하여 어떻게 모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신 종교 지도자이자, 인생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6.27(목) 19:30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전석무료(사전예약 필수)
예약문자 010-6476-3048



사전예약